

| 이달에 만난 사람 |

●●● Dr. Pedro Villegas 조지아 대학 교수

ND 질병 예방 대책은? 뉴캐슬병 백신만으로 충분히 치료 가능



한국에 대한 느낌은?

한국에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10년전 방문 당시에는 김포공항을 통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 공항은 어느 공항 못지 않은 시설과 규모를 갖추고 있었으며, 한강을 끼고 서울에 들어올 때는 주변 경관들이 잘 정비되어 있고 큰 건물들이 많이 들

어서 새롭게 변모해가는 한국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미나를 했던 이천은 작은 도시지만 사람 살기와 축산하기에 좋은 도시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먹어본 전통 한정식은 우선 가지수가 많다는데 놀랐고, 맛도 좋았으며, 매우 건강 음식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오기를 희망합니다.

▲ 고는 지난 6월 24일 본회에서 개최한 '전국질병순회 세미나'에서 뉴캐슬병(ND) 예방대책을 주제로 강의를 하기 위해 방한한 Pedro Villegas 박사를 만나 미국의 질병상황과 국내 ND 질병예방 대책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Pedro Villegas 박사는 미국 조지아대학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미국 양계질병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 Dr. Pedro Villegas
Texas A & M 대학 졸업
University of Georgia, 수의과 대학 교수
미국 양계질병 전문의

ND의 세계적인 추이는?

ND는 바이러스 질병중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List A로 규정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질병입니다. 또한, ND는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고르게 분포되어 발생되고 있으며, 백신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OIE에서 2003년에 발표한 전 세계적인 발병 보고사례를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가 338 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 323건, 이란 147건, 네팔 13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도 51건이 신고되어 ND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메리카 지역은 미국이 619건, 콜롬비아가 154건, 과테말라가 41건 멕시코가 1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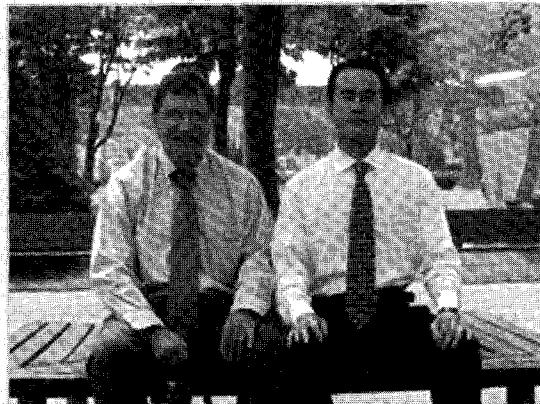
미국의 질병(ND<없음>) 현황은?

미국은 3전년에 ND가 발병한 적이 있는데 그 발생 원인은 여러 지역을 이동하는 싸움닭을 통해서 멕시코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병원성 ND는 박멸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언제 다시 외인성 ND가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ND에 대한 백신을 철저히 접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초에 델라웨어(Delaware) 지역에 저병원성 AI(H7)가 발생되어 철저한 검색 및 도태 정책으로 이 또한 박멸한 바 있지만 AI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방역망을 통해 재 발생할지 모르는 질병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인접국가인 멕시코는 ND와 AI가 간헐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현재 이를 질병에 대하여는 백신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항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육계에서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의 발생율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난 6월 24일 닭질병방역세미나를 마치고 이천 설봉공원에서 통역을 맡았던 이동우 박사(메리알 코리아, 우)와 함께.

ND 예방을 위한 백신의 중요성은?

우선 ND 백신은 부화장 등에서 조기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매우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접종 방법에 있어서는 분무백신이 국소 면역과 전신면역을 모두 유발시키므로 좋은 접종법으로 권장합니다.

특히, 정확한 접종을 위해 접종 방법 및 기구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백신에 있어서는 호흡기관인 기도와 장에서 모두 증식이 가능한 VG/GA(에비뉴주)가 유리한 백신인 것은 지난 세 미나에서도 소개 드린 바 있으며,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신 후 그 효능을 측정하는 혈청검사에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ELISA나 HI는 면역항체중 IgG만 측정되므로 국소면역을 담당하는 IgA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즉, ND는 변이형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저한 백신을 통해 한국에서 하루빨리 ND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정리 | 김동진 흥보팀장)